

Media release, September 15, 2020

맥슨-애니보틱스(ANYboics)의 협업 기대

스위스 드라이브 전문 기업 맥슨이 로봇 스타트업 애니보틱스와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맥슨은 향후 애니보틱스의 자율 탐색 로봇 애니멀(ANYmal)의 드라이브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애니보틱스는 이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젊은 기업으로 앞으로 중요한 로봇틱스 노하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업무 제휴는 맥슨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두 회사의 파트너십은 긴밀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으며 로봇 공학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스위스가 다시 한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맥슨은 애니멀에 사용될 액추에이터의 향후 개발 및 생산을 책임지게 됩니다. 애니멀은 산업시스템을 검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4 개의 다리로 이동하며 위험한 유지 보수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단, 경사 등 어려운 환경도 대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맥슨 그룹은 드라이브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60 여 년의 경험과 글로벌 생산 인프라 및 검증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애니멀의 산업화와 상용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니멀에는 경쟁력을 갖춘 12 개의 맥슨 고성능 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페터 판크하우저 애니보틱스 CEO 는 "우리는 로봇을 대량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드라이브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맥슨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통해 우리 로봇의 핵심 요소를 더욱 개발시키고 최첨단 생산 방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애니보틱스는 최근 스위스 이코노믹어워드 2020 을 수상했으며 하이테크/바이오테크 부문에서 스위스 최고의 젊은 기업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맥슨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인 로봇틱스 분야에 대한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슨 그룹의 CEO 오이겐 엘미거는 "애니보틱스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노하우를 한데 모으고 있다. 이 회사의 창의성과 뛰어난 대응력은 맥슨 그룹의 글로벌하고 안정적인 산업 환경과 잘 맞는다. 우리는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고효율의 지능형 로봇틱 드라이브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회사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리적으로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옴발덴(Obwalden)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맥슨은 애니보틱스와 가까운 취리히 엘리콘(Oerlikon)에 위치한 취리히 캠퍼스에 연구실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맥슨은 취리히 연방공대(ETH Zurich)와 취리히 대학에 더욱 가까워져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기술 지원 및 작업 공간을 제공하며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기를 희망합니다.

오이겐 엘미거는 "우리는 이미 취리히와 루체른 주변의 직업 교육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연구실을 통해 우리는 드라이브 기술과 로봇틱스 분야의 인재를 지원할 수 있는 더욱 좋은 환경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